



글로벌 기업을 향한 제2의 도약

INNOTG

김종락
공동대표

이노티지 김종락 공동대표는 이노디지털과 티지코프, 두 회사가 가지고 있던 각 사업 분야의 결합이 가지고 오는 시너지 효과와, 직원들의 화합과 업무독려를 위해 유입한 기업문화의 정착은 이노티지가 어떤 기업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벤처M&A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최 근 벤처업계 가장 큰 이슈는 단연 M&A다. 지난 4월 21일부터 벤처기업의 M&A 촉진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는 등 구조적 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기업 스스로도 M&A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간의 결합은 그 외형적 모습만큼이나 내부의 조화 등 수많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조합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업용 솔루션 전문기업 이노디지털과 종합 전자지불 전문기업 티지코프가 지난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오던 기업결합을 완료시켜 B2B유비쿼터스 전문기업 '이노티지'를 성공적으로 탄생시킨 것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제금융전문가 출신의 정정태 공동대표의 뛰어난 국제경영 감각과 CTO 출신 김종락 공동대표의 미래지향적 기술경영이 이노티지를 더욱 균형 있고 강한 기업으로 성숙시켜 나가고 있다.

성공적인 벤처기업 M&A 모델 제시

이노티지는 그동안 이노디지털과 티지코프가 각 분야에서 구축해 놓은 노하우와 영업, 고객기반 등의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신규사업과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노티지의 김종락 공동대표는 "두 회사에서 진행해오던 개별 서비스를 이제는 통합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동안 두 기업이 쌓아올린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시켜 이노티지 고객들이 보다 광범위한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노티지는 자료관시스템·KMS/EDMS/ebXML 분야의 안정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BPM과 전자금융사업 확대에 보다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자체 솔루션 '솔메(Solme)'는 물론 다양한 우수 외산 BPM 보유, 기업 특성에 맞도록 최적화된 BPM구축 능력을 기반으로 시장에서의 선두적 위치를 자신한다. 외산솔루션을 선호하는 국내 분위기를 고려해 다큐멘트, 파일넷 등 우수한 BPM을 보유하고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융전문가 출신의 우수 이사진들을 영입하여 기존 주력사업과 새롭게 추가된 통합전자지불서비스 사업을 양대 축으로 B2B 유비쿼터스 전문기업으로 도약해 전자금융사업에서도 업계 1위로 거듭난다는 전략이다.

기업문화의 정착으로 성공신화 이끌 것

김종락 공동대표는 이노티지가 하루 속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변화된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서로 융화하여 함께 업무에 매진하는 것이라고 생각,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독려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정착시키는데 애정을 쏟고 있다.

"우리 직원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직원에게 좋은 의견을 듣고, 그 속에서 방법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노티지는 직원들 간의 친밀감을 도모하기 위해 오후 4시에 '킵라면 릴레이 미팅' 시간을 갖는다. 이 시간은 부서별로 킵라면, 분식 등의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또 사내동호회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 동호회, 신우회, 등산 동호회, 문화동호회, 낚시동호회 등 수많은 동호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직원이 하나 이상의 동호회활동을 하고 있다. 김종락 공동대표 또한 신우회 회원으로 동호회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 매달 '홈커밍 디너파티'를 개최해 프로젝트로 인해 외부에 나가 있는 직원들을 사옥으로 초대, 외부에서 일하는 직원들까지 챙기는 세심함도 놓치지 않는다. 또한 직원들의 생일에는 정정태 공동대표와 함께 생일카드를 만들어 선물과 함께 전달한다. 더욱이 이노티지는 매달 회사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기초토대를 만들거나 창출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또 우수사원을 선정, 150만원의 상금을 지원해 모든 직원들이 회사의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사람이 중심에 있는 경영철학

김종락 공동대표 경영철학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그는 회사의 존재의미에 대해 첫째,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터전으로서의 의미, 즉 회사를 계속 성장시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기업의 이윤을 나누는 것, 즉 이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사회가 잘 맞물려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김대표는 이노디지털 때부터 기업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오고 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제2의 도약을 시작하는 이노티지가 벤처업계의 중심으로 올곧게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이 노 티 지 C I 소 개



심플한 디자인과 통일된 색감이 돋보이는 이노티지의 새 CI는 이노디지털과 티지코프, 두 기업이 조화롭게 어울려 통합 단결된 이노티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노티지의 로고색은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일념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감청색'을 사용했다. 이는 한국의 대표 글로벌 기업으로서 세계로 뻗어나갈 이노티지의 기업위상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로고체는 중세시대의 건축양식 형상을 적용해 새롭게 개발한 글씨체로 역동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